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기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각 경전은 50세에 도통한 분이 구세주라고 기록돼

#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나요이다”

조희성님은 50세가 되는 1980년 10월 15일 도통(道通)하셨다.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자신 속에 모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신은 자아(自我)가 죽지 않으면 모실 수가 없다. 반대생활로 자신을 완전히 죽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자신 속에 모셔지게 되는 것이다.

###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나요

그 당시의 상황을 조희성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제 나라는 것을 의식하려고 할 수가 없는 단계로 들어가 마귀가 흔들려보려 흔들려 볼 수가 없는 단계가 되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겼네! 네가 이긴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나 그때 ‘아!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셨지요’라고 대답을 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네가 또 이겼네! 이제 네가 완성자가 되었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또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기셨지요! 하나님이 저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셨나이다!’

이와같이 승승장구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해 올라가자 마지막 사망권세마저도 단칼에 부숴버리는 이긴자가 드디어 탄생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시어 하나님께서 이긴자가 되신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마귀 육에 갇혀 있던 온 우주가 육천년 만에 육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육천 년 만에 마귀의 사망권세를 이기시니 온 우주는 고통과 사상이 다시 없는 승리의 개가를 영원토록 소리 높여 부르게 된 것이다.”

### 각 경전은 50세에 도통한 분이 구세주라고 기록하고 있다

1) 天地開闢經(천지개벽경); 布教五十年工夫終畢(포교오십년공부종필)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신 뒤에 ‘포교오십년공부종필’이라고 써서 불사르고, 여러 종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옛사람 인물이 50세에 가서 49년 동안의 그름을 깨달았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썼노라. 내가 천지 운도를 뜯어 고쳐 물살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오직 너희들은 타락하지 말고 일심으로 믿어 나가라”

천지개벽경은 강증산 선생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으로써 증산도의 경전이다. 강증산 선생은 천지 운도를 뜯어고쳐 새



위 사진 설명: 천여 년 전에 세워진 충남 논산 천축산(天竺山) 기슭의 개태사(開泰寺) 입구에 세워진 일주문 상량목을 올려다보면, 불기 3007년 경산년 8월 28일 상량(佛紀三千年庚申年八月二十八日上樑)이라고 북방불기로 표기되어 있는데,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는 불기 3007년, 즉 서기 1980년에 중창불사를 하여 상량을 하였다는 뜻이다. 또한 1992년 임신년에 미륵불께서 다녀가신다고 예언된 문구도 적혀 있다.

도수를 짜놓았는데 그 도수가 돌아 새 기틀이 열린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布教五十年工夫終畢(포교오십년공부종필)이다. 50세에 공부를 마치고 도통을 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2) 萬法典(만법전); 治天下五十年(치천하오십년)

“治天下五十年”에 고생졸만 두었으나 50년 고생으로 오만년무궁복(五萬年無窮福)을 한없이 받게 하였으니, 고생줄 못 견뎌서 어떤 사람을 원망할까. 화(禍)가 크다 한(願)을 말고, 복이 크다 노래하라.

나를 따르는 자는 모두 복마(伏魔)가 발동하니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대복(大福)이 뒤를 따라 이르나니라”

만법전은 자자 미상으로 유불선(儒佛仙) 삼교(三教)에 관한 교리를 엮은 경전이다. 특히 만법전은 미륵불에 대한 예언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승리제단 신도들에게는 중요성을 갖는 경전이다. 조희성 이긴자께서 7년 옥고를 치르고 3년 만에 다시 옥고를 또 치르게 되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은 두루 아는 바와 같다.

50년 동안 죽을 고생 끝에 사망을 이겨낸 공덕으로 인류에게 5만년 무궁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예언이 참으로 실감이 난다.

3) 華嚴經 十定品(화엄경 십정품) 제 27-4; 五十由旬清淨無濁(오십유순청정무탁)

“令諸衆生趣向菩提 如無熱大池 其中縱廣五十由旬 清淨無濁 菩薩摩訶薩 亦復如是;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 무열대지와 같아서 그 가운데 세로의 넓이가 오십 유순이며, 맑고 깨끗하고 탁함 없으니 보살마하살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의 마음은 한량없이 크고 넓은 마음인데 그 안에는 조금도 흐리거나 탁함이 없다. 50세에 득도하신다. 그 마음은 맑은 빛과 같은 마음인데 정정하여 조금도 흐림이 없다. 대도를 이루면 이와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유순(由旬)은 고대 인도에서 사용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소달구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 예언에서 오십유순(五十由旬)은 그러한 거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50세에 미륵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어야 한다.

### 구세주가 50세 되는 해는 불기(佛紀) 3007년이며 서기 1980년이 된다

화엄경에는 미륵불이 1980년에 출현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있다.

“三千年後 名三聖明燈 悉能現見 一切如來 諸本事 知七日後 佛當出現; 삼천 년 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불을 밝혀 이름을 내어 일체 여래의 근본의 일인 해인을 능히 나타내어 보여준다. 7일 후를 알아라. 부처가 마땅히 출현한다(華嚴經 70권 立法界品 29-10)”

위 내용은 미륵불이 불기(佛紀) 3000년 하고 7일 후에 출현한다는 예언이다. 그런데 여기서 7일 후는 글자 그대로 7일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를 푸는 암호가 있다. “已經日月年載; 지나간 일과 월은 년으로 적는다(華嚴經 79권) 즉 불경에서 일과 월은 년으로 쓴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의 7일은 년으로 계산하여 7년이 된다. 그러므로 미륵불은 3000년에서 7년을 합한 3007년에 출현한다. 불기 3007년은 서기 1980년이다.

여기서 삼세명등(三聖明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삼세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 우리 몸이 이루어져 성불(成佛) 즉 이기신 하나님이 되면 우리 몸속의 선조들의 영이 동시에 성불하게 된다. 조상의 내세가 우리의 현재요, 우리의 전생이 곧 조상의 현재이며, 우리의 내세는 우리 후손의 현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몸안에 삼세 즉 전생 현재 내세가 모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고 하나님이 되면 삼세명등이 되는 것이다.

### 산천초목이 경배하다

조희성님이 극기승자가 된 날(1980. 10. 15) 평시와 같이 산에 나무하기 위하여 지계를 지고 산길에 접어들어 길 양편에 있는 나무와 풀들이 일제히 극기승자를 향해서 절을 하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나뭇가지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하면서 춤을 추고,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있는 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조희성님이 극기승자가 됨으로써 산천초목들도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기뻐 날뛰며 춤추었던 것이다. “구세주가 나오시니 삼라만상이 구원이 되도다!” 그러나 인간들이 기뻐할 줄을 몰랐던 것이다. 인간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고로 극기승자가 나왔음을 알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긴자 조희성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의 학설을 말씀하실 때 당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신비한 일을 간증하니 대부분 사람이 믿지를 못하였다고 한다. 그때 승리제단을 찾아온 여러 스님들이 미륵불이 출현하면 그런 광경이 불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불경의 구절을 소개한다.

華嚴經第五十九卷(화엄경 제59권)

菩薩摩訶薩 坐道場時 一切世界 보살마하살 좌도장시 일체세계 草木叢林 諸無情物皆曲身低影 草木叢林 諸無情物皆曲身低影 초목총림 제무정물개곡신저영 歸向道場 是爲第四未曾有事 歸向道場 是爲第四未曾有事 귀향도량 시위제사미증유사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모든 세계의 초목과 숲과 무정물들이 몸을 굽히고, 그림자를 낮추어 도량으로 향하니, 이것이 네 번째 처음 있는 일이니라”\*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4)

### “믿음은 승리자의 영”

구세주가 우주에 꼭 찬 마귀를 모조리 섬멸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죽지 않고 점점 많아지는 것은 영생의 조류가 세차게 흐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는다’(엡2:8)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곧 구세주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구세주의 승리하신 영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의 영이 생명과일이며,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므로 믿음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 이기는 삶 쉽고 짧게 반복해서 전달하라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훌륭한 아이디어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은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의사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리더십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이에 ‘왕따’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먹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장광설(長廣說)을 늘어놓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쉽고 짧게 말해야 한다.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쉽고 짧게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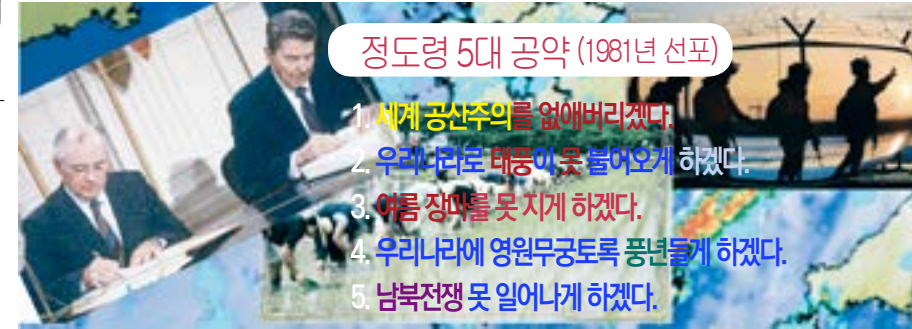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표정이나 몸짓에 주의를 기울여 상대방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알고 싶은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을 파악해야 한다. 미리 상대에 대해 공부하여 상대의 생각에 공감해주는 것이 의사소

통을 잘하는 요령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어 한다. 상대가 나를 알고 내 처지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 문을 열게 되어 있다.

더하여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만담가(漫談家)가 되어야 한다. 강의하듯 하면 사람들은 흥미를 잃는다. 할머니가 옛날이야기를 해주듯 이야기 하면 흥미가 배가 된다. 만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고전에 대해서도 두루 꿰고 있어야 한다. 산 경험도 쌓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조직의 책임자라면 한두 번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 비전이나 경영이념, 경영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직원들은 최초 3-4번까지는 ‘또 같은 소리 하네.’라고 하다가 10회 정도 되어야 비로소 경영자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어 반응을 보이게 된다.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두려워, 혹은 말주변이 없어서 감동을 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 몇 번 얘기하고 마는 경영자가 많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은 몇 번 듣는 정도로는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귀에 못이 박히게 질리도록 계속해서 얘기해야만 조금씩 이해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리더는 부하직원들이 싫어할지 알면서도 중요한 사항은 반복해서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 나라 태풍이 온 날이 없게 하겠다.
3. 위를 장악을 못치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영원무궁토록 풍년풍작이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정도령 20세기 후반에 정도령님의 <5대 공약>이 선포된 지 어언간 44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촌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가뭄과 산불 그리고 홍수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점에서 정도령의 5대 공약 가운데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가 하면 소멸시키는 능력과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는 능력 그리고 풍년풍작을 하는 능력을 정도령이 갖추고 계시기에,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이 44년째 우리나라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민족의 예언서 격인 율록에는 정도령이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축 승리절 44주년

승리절은 인류의 광복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24년 10월 15일